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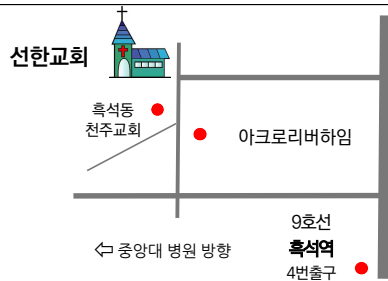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7장 (통일찬송가 31장)
교 독 문	교독문 40 (시편 96편)
찬 양 과 경 배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대 표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7장 24~29절
설 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잠8:22-36)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위원회모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 제직회 모임	다음주일 제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직회 방법은 차후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왕상1장~왕하25장]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기간: 11월 15일 까지)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5.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손진강, 손가은, 홍성호 / 수능일: 2020년 12월 3일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6.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매순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기를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모든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	--

가정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 : ‘내 주여 뜻대로’ 549장(통 431)

본문 : 사무엘하 7장 1~17절

말씀 : 다윗왕이 나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2절)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모실 곳이 없어서 아무 데나 방치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은 선한 소원입니다.

나단 예언자는 다윗왕의 말을 듣고 즉각 대찬성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3절) 성전을 짓겠다는 말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왕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5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왕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그의 아들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나단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찬성했는데 하나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처음에 찬성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언자가 자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그 까닭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느라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군사를 동원해야 하고, 군량미나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하고,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백성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나중에 원망을 터뜨릴 것이 뻔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산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나단은 자기 생각을 접고 다윗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때 다윗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망이 대단했겠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지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 만에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백성들이 다윗 성전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러면 다윗왕은 후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오래도록 추앙을 받을 텐데요. 다윗왕은 못내 아쉬웠지만, 성전 건축의 꿈을 접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합니다.(25절)

다윗왕은 선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역시 잘한 것입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은혜의 말씀

제목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7:24-29)	
서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본론	1. 지혜로운 자 vs 어리석은 자 (1) 지혜로운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지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24절) (2) 어리석은 자는 모래위에 집을 지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26절) (3) 결과: ①반석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음(25절) ②모래위의 집은 무너짐이 심함(27절) (4) 왜 우리는 반석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위에 집을 짓게 되는가? 2. 교훈 (1) 나는 지금 반석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2)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의 말씀임을 믿고 있는가? (3)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멸망하는 바벨론	날짜 : 10월 26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본문	예레미야 51:25~40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명하시어 바벨론을 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자로서, 열국의 왕들로 방백들을 시켜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명령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국에 의해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군대로 하여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보응하게 하심으로써 죄악에 대해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을 통하여 바벨론을 치실 때 바벨론의 군사들은 싸움을 그치고 무력해집니다. 한때는 사기가 충천하여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여인처럼 기력이 쇠하여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리에 있는 바벨론을 끌어 내리어서 어린 양과 숫염소가 도수장으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염소는 죽을 것을 알고 풀이 죽어 있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적임을 말씀해 줍니다.		
묵상질문	교만한 자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
찬양과 기도	이 세상 험하고 (새 263)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어떤 부인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어느 날 양 무리가 있는 한 목장에 들렀습니다. 목자 옆 건초 더미 위에는 병이 난 듯한 양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양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하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는지 목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양 때 중에, 이놈이 가장 속을 썩이는 양이었지요. 이 녀석은 제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양 떼를 이끌고 갈 때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몇 번인가 위험한 벼랑 끝까지 가서 헤매고 있기에 구해 온 적도 있습니다. 자기만 불순종할 뿐 아니라 다른 양 들까지도 길을 잃게 만들지 뭍니까.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이놈이 날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일 혼자 누워 있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가 보니 녀석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 있었어요. 이 녀석은 열심히 먹이를 먹을 뿐 아니라 내 손을 핥으면서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양은 건강해지면 모든 양 중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양이 될 것입니다. 이 망나니 양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고나 할까요? 이 양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52:1~11	
묵상포인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생명 길을 알려 주셨건만, 시드기야왕과 백성이 택한 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얻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평안과 일시적 쾌락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드기야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나요?(2~5절)	
적용하기	하나님 뜻으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은 내 안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종착지는 고통과 눈물 골짜기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	날짜 : 10월 30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예레미야 52:12~23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십구년 오월 십일에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보내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만들기 위함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를 범한 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군 다윗에 의해 탈환되고 법궤가 안치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도성이 불에 탄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인 느부사라단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윗 왕 때에 축조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더욱 큼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헐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뜻으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묵상질문	나는 무엇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선지자의 애가	날짜 : 10월 27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 가며		
본문	예레미야 51:41~53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함을 인하여 애가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황폐함을 슬퍼하면서 그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쳐 그 많은 파도가 덮였으며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어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 같이 그 고난을 아파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중에서 나와 여호와와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 때에 칼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서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선민들에게 베푸신 기업입니다.		
묵상질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바벨론을 보옵하시는 하나님	날짜 : 10월 28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51:54~64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교만한 바벨론을 친히 보응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반복하여 교훈해 주는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부리는 자가 거두게 되는 열매란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보응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으로 멸망한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가랴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읽은 후 그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 가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어 그 이후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심판주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아이나 작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선 적이 있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시드기야의 운명	날짜 : 10월 29일
찬양	찬송가 483장 구름같은 이 세상		
본문	예레미야 52:1~11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의 조카인 여호야킨이 바벨론 왕에 의해 폐위된 후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계속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됨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자신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구년 시월 십일에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년 간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안에는 기근이 닥쳐 식물이 다 떨어지고, 성안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십일년 사월 구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깨뜨렸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벽이 뚫리자 유다 왕 시드기야는 급히 도망을 쳤으나 뒤쫓아온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힌 시드기야는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가서 심문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과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바벨론에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묵상질문	악인의 최후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의 기도			